

2026학년도 유아임용 2차 수업실연 복기 - 채니T(@zzaenii_t)

활동명 : 겨울아, 안녕?

활동 연령 : 만5세 (8명)

주요 내용

- 겨울 날씨의 특성을 알아본다.
-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.
- 동시 감상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.

누리과정

- 자연탐구, 의사소통

● 조건

- 도입, 전개, 마무리(일부)를 15분간 시연하시오.
- 도입에서는 '자리배치 - 겨울 특징 알아보기 - 활동 소개 - 약속 정하기'를 포함하시오.
- 전개에서는 다음 내용을 반영하시오.
 - 1)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 짓기를 촉진하는 발문
 - 2) 글씨 적는 것을 어려워 하는 유아
 - 3) 동시요소 (운율, 의성어, 의태어 등)를 포함할 것
 - 4) 동시 감상을 지원하는 발문
- 마무리는 '평가 - 확장활동'을 포함하시오.
- 마무리에서 '전이'는 생략하시오.

활동유형 : 동시 짓기 및 감상하기

누리과정 관련 요소

-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.
- 동화,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.

● 사전놀이 상황

산책을 통해 겨울이 되어 추워진 날씨를 알아보고, 눈사람도 함께 보았다. 이후 교실에 돌아와 유아들과 함께 동시를 배워보는 활동을 하였다. 유아들이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를 직접 지어보고 싶다고 하였다.

(뒤 구상지에 활동 목표와 / 전이 발문이 적혀져 있었음 (전이 생략))

활동 목표

1. 겨울의 계절과 날씨의 특징을 안다.
2. 나의 경험, 느낌,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.
3. 동시를 감상하며 즐거움을 느낀다.

안녕하십니까, 관리번호 00번입니다. 지금부터 수업실연을 시작하겠습니다.

[도입]

꽃잎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모두 즐겁게 동시 지어보자.

꽃잎반 친구들,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**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자리에 자유롭게 잘 앉아주었네요. 모두 무지개 모양으로 앉아주었군요.**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이 잘 보이나요? 선생님이 잘 보인다면 머리 위로 큰 하트를 만들어주세요.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선생님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.

그럼 우리가 늘 보았던 놀이나눔터 사진을 봐보도록 할까요? 놀이나눔터 나와라~ 똑딱! 첫 번째 사진이에요. 어떤 사진인가요? 그래요. 00이 말처럼 우리가 꽃잎유치원 앞에 있는 숲에 나가 **산책**을 간 사진이네요. 우리 00이는 이제 겨울이라 **날씨가 추웠던게 기억**이 나요? 맞아요. 00이 말처럼 숲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도 했지요. 다음 사진을 봐볼까요? 다음 사진을 보니 우리 꽃잎반 친구들이 커다란 **눈사람**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~. 00이는 이때 눈사람이 단추 눈을 하고, 나뭇가지가 팔이 되어 꽃아져 있던게 기억에 남는군요? 이제 다음 사진도 봐볼까요? 그래요. 다음 사진은 우리 꽃잎반 친구들이 함께 '눈사람'이라는 **동시를 읽고 있는 사진**이에요! 우리가 이렇게 **겨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, 동시도 읽어본 후에 우리 친구들이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를 모둠으로 지어보고 싶다고 하**였지요? 그럼 오늘은 우리가 모둠으로 겨울과 관련된 동시를 지어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우리 친구들이 모두 좋다고 해주네요. 00이 말처럼 우리가 재미있게 동시를 지어보기 위해서는 모둠활동 할 때의 **약속이 필요하겠네요.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?** 00이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며 친구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, 00이는 나와 다른 친구의 생각에도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! 아~ 우리 00이는 동시를 감상할 때에도 약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? 어떤 약속인가요? 우리가 동시를 감상할 땐, 조용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~.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동시를 잘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요~. 그럼 우리가 말한 친구와 차례지켜 이야기하고, 나와 다른 친구 생각도 존중해주며 귀 쫑긋해서 동시를 감상해보는 이 약속들을 잘 기억해보며 동시 활동을 해보아요.

[전개]

우리 친구들, 그럼 이제 모둠별로 앉아볼까요? 아, 우리 친구들이 쓰기도구와 종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 선생님이 가져다 줄게요. 친구들이 모두 쓰기도구와 종이를 받았으니 동시 만들기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! 우리 함께 시계를 봐볼까요? 긴 바늘이 2에 있네요. 아~ 모두 긴 바늘이 6에 갈때까지 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~. 그럼 선생님이 숫자 6에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제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펼치며 재미있는 동시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~

배려 모듬 친구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네요.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? 아, 배려 모듬은 겨울이 주제니까 제목도 겨울로 하자!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군요. 00이는 '바람이 부는 겨울'이라고 적어보고 싶은데, 글씨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? 음,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? 아 그래요~ 00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네요? 00이도 00이가 도와주어서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리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!(엄지척)

그런데,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부는 겨울을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? 00이가 바람이 부는 소리를 넣어보자는 의견을 내주었네요! **바람이 불 때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?** 00이는 바람이 불 때 **휘잉~ 휘잉~**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? 우리 00이는 어쩔땐 **쌩쌩~**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한다고요~. 우리 친구들 말처럼 **헹헹, 쌩쌩** 부는 바람이라고 하면 더 재미있는 동시말이 되겠는대요? 서로 생각을 더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~

우리 존중 모듬 친구들이 차례를 지켜 이야기를 잘 나눠주고 있네요. 아, 존중 모듬은 동시의 제목을 '추운 날'이라고 지었어요? 정말~ 추운 날이라고 하니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이 떠오르는데요? 우리 존중 모듬 친구들이 추운 날 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었군요. 00이 말처럼 추운 날 ~도 보고, ~도 보고 이렇게 보고 보고가 반복되면 정말 재미있는 동시가 완성되었어요!

우리가 추운 겨울에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? 아~ 우리 00이는 아까 보았던 사진처럼 눈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떠올랐군요! 눈사람이 어떻게 생겼었지요? 우리 친구들이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~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이야기 해주네요! 그래요~ '동글동글 눈사람도 보고'라고 적으면 좋겠네요! 또 무엇을 볼 수 있지요? 00이는 눈 내리는 풍경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주네요~ 눈은 어떻게 내리지요? 00이가 평평 눈이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~ 00이가 평평 눈 내리는 것도 보고 라고 적고 싶은데, 평평의 '평'이라는 글자를 적기 어렵다고 하네요. 음,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? 아~ 선생님이 도와주면 해볼 수 있겠다구요? 그럼 선생님이 옆에 평이라고 적어줄게요. 이제 00이가 선생님이 적어준 것을 보고 따라 써볼 수 있어서 글자 적기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네요~

꽃잎반 친구들~ 시계를 볼까요? 긴바늘이 6에가 있네요! 우리 친구들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군요. 그럼 선생님이 5분 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. 긴바늘이 7이 될 때까지 동시를 만들어 보아요~ / 꽃잎반 친구들~ 긴바늘이 7이 되었네요!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요~. 그럼 이제 이야기 나누기 자리로 모여볼까요?

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마치고 이야기 나누기 자리로 모여주었어요. 이제 동시를 감상해 볼 건데, 아까 정했던 동시 감상 약속 잘 기억나나요? 맞아요~ 우리가 조용히, 귀 쫄긋하고 동시를 들어보기로 했지요. 우리가 정한 약속을 잘 기억하면서 동시를 들어보아요.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든 동시를 발표해 줄 모듬 있을까요? 우리 배려 모듬이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요. 배려 모듬 친구들이 만든 동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볼까요?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모두 동시가 잘 보이도록 칠판에 크게 붙여주도록 할게요. 배려 모듬 친구들은 '겨울 / 횡횡 바람이 부는 겨울 / 목도리도 해야 하는 겨울 / 장갑도 차야 하는 겨울 / 뽕뽕 바람이 부는 겨울' 이라고 동시를 지어보았다고 하네요! 00이는 눈을 감고 동시를 들으니 정말 추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~? 그래서 목도리도 하고, 장갑도 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군요. 이제 존중 모듬 친구들이 나와서 동시를 발표해볼까요? 존중 모듬 친구들의 동시도 칠판에 크게 붙여두도록 할게요. 우리 존중 모듬 친구들은 '추운 날 / 추운 날에는 동글동글 눈사람도 보고 / 평평 눈 내리는 것도 보고 / 겨울 간식을 먹는 사람들도 보지요.'라고 지어주었다고 하네요. 우리 존중 모듬 친구들 발표해 주어서 고마워요.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. 이렇게 두 모듬의 동시를 감상해 보았어요~. 선생님이 친구들이 만들어 준 동시를 칠판에 붙여볼게요.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반짝 반짝한 생각들이 모여 꽃잎반만의 멋진 동시가 완성되었네요!! 우리 열심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동시를 만들어 준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를 해줄까요? 칭찬의 박수! 짹짹 칭찬!

[마무리]

우리가 오늘 이렇게 겨울의 특징을 알아보고, 모듬으로 겨울을 주제로 한 동시를 짓고 감상도 해보았어요!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해볼까요?

00이는 우리가 직접 동시를 만들어 보고 감상도 해보아서 재미있었다고 하네요! 00이도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되었다는게 느껴졌어요? 그래서 이제 옷도 더 두껍게 입어서 따뜻하게 할거라고요~. 우리 친구들이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.

00이는 오늘 배려 모듬이 횡횡 바람이 분다고 했던게 기억에 남아요? 그래요. 뽕뽕 바람이 분다고도 했었지요. 우리 친구들이 말놀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네요~?

00이는 존중 모듬이 평평 눈이 내린다고 해서 정말 눈 내리는 것이 그려졌어요? 재미있는 말이 많았

다고요~.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동시를 만들면서 재미있고 멋진 표현을 많이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.

우리 00이는 동시 만들기도 재미있었지만, 동시를 감상하는게 더 즐거웠다고도 이야기 해주네요!

그럼 친구들, 혹시 더 해 보고 싶은 활동 있을까요? 00이는 오늘 내 생각을 동시로 표현해 보았으니, 이제 겨울에 했던 놀이에 대한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고 하네요? 정말, 그림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? 다른 친구들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~ 00이는 우리가 만든 동시를 복도에 전시해보고 싶다고요? 00이 말처럼 복도에 전시를 해두면, 지나가시는 선생님과 동생반 친구들이 우리의 동시를 감상해 볼 수 있겠네요!

이상입니다. (21초 남음)